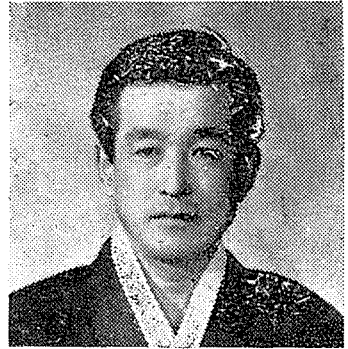


■ 世界圖書館記行 ■

아메리카 圖書館의 周邊 (4)

金 世 翊



테네시로 가는 길

2월 28일 일요일 날 눈이 펄펄 내리는 아침에 인디애나 대학이 있는 부르밍턴의 초라한 버스 정류장 역시 초라하기 그지 없는 나무 벤치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디애나포리스까지 버스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 타고 조오지 피바디 대학이 있는 테네시 주의 수도 내시빌로 가야 한다. 부르밍턴의 이 빈약한 버스 정류장의 아무렇게나 켜 인트 킬을 한 벤치에 앉아서 나는 잠시 여수에 잠겼다. 거대하고 어마어마 한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빈약한 삼등 정거장 (나는 여기서 우리 나라의 시골 정거장의 대합실을 연상했다)에 앉아서 나는 향수 같은 것에 잠겼다. 내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탓일까 또 내 자신의 마음이 그토록 가난하기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서 깨어난 것은 잠시 후에 온 버스를 탔을 때였다. 커다란 여객 버스 안에 손님이라곤 운전수까지 합쳐서 네명뿐이고 나도 혼자 탔으니 모두 다섯명뿐이었다. 이 다섯명을 실은채 버스는 몇 시간 동안 아무 불명 없이 달려야 한다. 콩나물처럼 사람을 태우고도 또 더 태울려고 악을 쓰는 우리 나라의 시골 버스를 생각하고 과연 미국이로구나 하는 감회가 저절로 한숨 같은 것으로 바꾸어졌다.

나는 지금 우리 나라 도서관학과 도서관계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준 조오지 피바디 대학을 찾아 가는 길이다. 인디애나포리스(인디애나 주의 수도)에 버스가 도착했을 때에는 눈은 멎었으나 추위는 여전하다. 비행장에 가보니 도중에 켄터키의 루이빌(Louisville)에 들렀다가 다시 갈아 타고 내시빌로 가는 델타 에어라인(Delta Airline)의 프로펠러 두개 있는 조그마한 비행기가 있을 뿐이다. 경험한 이는 다 아는 일이지만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나는 언제나 죽을 각오를 한다. 더구나 이렇게 작은 쌍발 비행기를 탈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탄다. 사실 나는 그 후 덴마크로 갈 때와 스웨덴의 마드리드로 갈 때 두번 죽을 뻔 했다. 한번은 비행기 플우즈가 타면서 연기가 삼시간에 꼭 찻을 때고 또한

번은 도중에 갑자기 프로펠러가 정지되었을 때. 이렇게 중대한 결심과 각오를 하고 탄 비행기는 별사고 없이 루이빌에 도착했다. 켄터키 주는 남쪽이라서 그런지 산이 파랗게 물들고 푸른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두개 세개 오가는 여기는 벌써 봄이 완연하다. 나는 미국에 온 이래 처음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았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켄터키라 하면 푸른 하늘이 연상되곤 한다. 루이빌에서 다른 비행기(American Airline)를 갈아 타고 남으로 남으로 날아서 드디어 조오지 피바디 대학의 소재지 테네시 주 내시빌 비행장에 도착했다. 공항의 출입구에서 있던 중년 부인이

「미스터 김」하고 다가 와서 악수를 청한다. 아마도 미리 유네스코에서 연락을 받고 마중 나온 모양이다. 미국에 와서 여러 번 겪은 일이기도 하지만 나는 이런 친절에 언제나 눈시울을 적시곤 했다. 무슨 고판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학자도 아닌 나를 미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환영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

그 부인은 미세스 바아바(Mrs. Barbour)이라 부르며 그의 남편은 The Third National Bank의 부총재였다. 말하자면 테네시의 은행가요 내시빌의 유지였다.

바아바 부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내시빌 시내로 들어 왔다. 미국 노래에 테네시 왈츠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불리워지는 모양인데 이 노래 때문에 나는 테네시에 대하여 꼭 낭만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내시빌에 와 보니 고색 창연한 옛 도시로서 낭만과는 반대였다. 내시빌은 테네시 주의 수도이며 상공업 도시다. 이곳에서는 비낭만적인 면화, 피혁, 제재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높은 건물도 없는 남부 아메리카의 전형적인 중도시였다. 나는 바아바 부인의 안내를 받으며 알렌호텔(Allen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내시빌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 알렌 호텔을 기억할 것이다. 다음날 아침 바아바 부인은 나를 피바디 대학으로 다려다 주기 위해 일찌기 호텔로 찾아 왔다.

조오지 피바디 대학

남부의 콜럼비아라고 부르는 조오지 피바디 대학(정확한 교명은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라고 하며 사범대학이다)과 우리 나라 도서관 및 도서관학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1957년에 6·25 동란에 막심한 피해를 입은 우리 나라 교육의 재건과 원조를 위하여 ICA에서 우리 나라에 교육 사절단을 보냈다. 그 때에 ICA와 계약된 학교가 바로 조오지 피바디 대학이었다. 그들의 활동중 도서관 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조오지 피바디 대학에서 온 사람은 아니지만 스와이거 여사도 그 프로젝트에 따라 연세대학에 와서 한국도서관 학교를 세우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고 연세대학에 정규 4년제 대학과정의 도서관 학과를 설치하는 데에도 키이 멤버였다. 그녀는 2년동안 연세대학에 머물면서 정력적인 활동을 했다. 그녀의 공과에 대한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나라 도서관계에 새로운 입김을 불어 넣었다는 점 또 우리 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 학교를 설치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초인적인 열성 등 그녀는 한국의 도서관인들에 의하여 더 오래 기억되어야 할 것이고 더 많은 존경을 받아서 마땅하다. 미국에 돌아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미국에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중 끝내 만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 스와이거 여사였다. 후임으로 오신 버제스 선생도 조오지 피바디 대학의 교수는 아니고 뉴우욕 주립대학(올바니 소재)도서관 학과 교수였다. 그 분도 피바디와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오셔서 오년 남짓이 근무하시다가 돌아가서 현재 뉴우욕 주립대학에 계신다 그 선생님도 우리 나라 도서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스와이거 여사와 더불어 한국 도서관사에 남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조오지 피바디 대학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피바디 대학에 유학했으며 특히 도서관관계에서 간 사람은 거의 전부가 이 피바디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 곳에서 공부하고 돌아 온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하나의 피이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바디의 영향이 너무 많이 침투되고 있다. 피바디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미국 도서관학의 전부는 아니며 또 가장 좋은 방법도 아닌 것을 나는 미국내의 수십 개의 도서관 학교를 돌아 본 후 알게 되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유일한 것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독선에 빠지기 쉽다. 도서관학은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그 역사가 짧

기 때문에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하는 우리 나라 도서관학계에 폭 넓은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 그 날 아침에 바아바 여사와 같이 피바디 대학 도서관 학교에 가서 유명한 체니(Frances Neel Cheney) 선생을 만났다. 체니 선생은 특히 참고업무에 대한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미국내에서도 유명한 교수이다. 한국 학생을 많이 가르쳐 본 경험이 있고 한국 사서를 많이 알고 있는 말하자면 친한파(親韓派)교수였다. 나를 보고 C씨는 잘 있느냐 R씨는 지금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가 K씨는? 등 그가 아는 우리 나라 도서관인들. 다시 말하자면 그녀의 제자였던 사람들의 소식을 궁금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녀와 나는 이번이 초면이기도 하나 한국에 있을 때부터 책을 통해서 또 피바디에서 공부하고 돌아 온 이들에게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면의 서먹 서먹한 기분도 없이 이야기 할 수가 있었다. 체니 선생의 사무실에는 새로 출판된 책이 수십권이 있었다. 그것은 저자나 출판사에서 그녀의 서평을 얻기 위해서다. 그녀의 서평의 가부는 곧 그 책의 가치를 좌우하다 싶이 하기 때문이다. 서평에 대한 그녀의 권위가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체니 선생은 강의 외에 그 많은 책을 읽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말하자면 무섭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학장으로 있는 기틀러(Robert L. Gitler)박사는 전에 워싱턴 대학 도서관학교 학장(워싱턴 D.C.가 아니고 Seattle에 있는 대학)이었으며 또 1951년부터 일본에 와서 경응대학(慶應大學) 안에 일본 도서관학교(Japan Library School)를 설치하고 일본에다가 새로운 발전된 미국식 도서관학을 심고 싹틔게 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연세대학교에 Korean Library School을 세웠던 Mrs. Swiger나 Burgess 선생의 경우와 같다. (물론 그 규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는 있지만) 일본에 있어서 그의 공적을 인정한 일본 정부는 그에게 높은 훈장을 수여하고 또 경응 대학에서는 그에게 명예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우리나라에서 Swiger 여사나 버제스 선생에게 한 대우와 비교할 때 착잡한 감이 든다. 일본 도서관 학교에는 Gitler 학장의 주재 아래 Cheney 선생 그리고 콜럼비아 대학의 Bertha Margaret Frick 여사 웨스턴 리저어브 대학의 Hannah Hunt 여사 그 외에 Edgar R. Larson 또 Phylis Jean Taylor 선생 등 미국에서도 제일급에 속하는 교수들이 교편을 잡았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딘가 소홀했던 것 같다.

그후 기틀러박사는 잠시 미국 도서관 협회에 있다가 얼마전에 이 조오지 피바디 대학의 도서관학교 학장으로

취입했다. Gitler 박사는 미국 도서관계에서 정력적인 일꾼으로 이름난 분이고 또 Japan Library School 건설에 대한 그의 공적이 미국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조오지 피바디 대학에서는 그런 유능한 일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는 1867년 매사추세츠에 살던 George Peabody란 사람이 그 당시 100만불을 내놓고 남부 미국의 교육을 진흥시키고자 했을 때 그것을 기금으로 생겨난 학교다. George Peabody는 1869년에 또 100만불 정도 기증했다. 그렇게 출발한 George Peabody 대학은 순조롭게 발전하여 세칭 남부의 컬럼비아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명문교가 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각 주의 주립 대학이 팽창하고 각주에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지출하여 주립 대학의 전성시대를 초래하게 되자 사립 대학은 도저히 경쟁해 나갈 도리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George Peabody도 사양 대학(斜陽大學)이 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그 유명한 컬럼비아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쨌서 사립 대학이 망하게 되는가 하면 돈이 없으니까 교수 대우를 잘 할 수가 없다. 유명한 교수는 돈 많은 대학에 의해서 스카우트 당해 간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 돈에 팔려 간다고 비난도 할 수 있지만 미국은 다르다. 돈 더 주는 데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교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를 잘 할 수 없었던 그 학교를 욕하게 된다. 좋은 교수가 없으면 그 대학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 돈이 없으니까 학교의 시설을 잘 할 수가 없다. 현대 교육을 제대로 할려면 얼마나 많은 교육 시설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주립 대학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다. 주립 대학은 그 주의 세금으로 하니까 등록금이 아주 싸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급 자족해야 하는 사립 대학에서는 비싼 등록금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한 학기 등록금이 우리 돈으로 3,400만원이나 한다. 교수가 없고 시설이 나쁘고 등록금이 비싼 대학으로 학생들이 갈 리가 없다. 학생수가 적으니 등록금 수입은 더 적어지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학교를 잘 해 나갈 재주가 없다. George Peabody 대학도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땅에 떨어진 학교의 위신과 권위를 찾고 피바디의 옛날의 그 영광을 도로 회복하기 위하여 총장이나 이사회는 안간힘을 다 쓰고 있다. Gitler 박사가 George Peabody 대학 도서관 학교 학장으로 모시게 된 동기도 그 대학도서관 학교의 옛날의 명성을 도로 찾아 달라는 절실한 희망에 의해서였다. 학교 당국은 이 Gitler 학장에 기대하는 바가 자못 크다. 또 Gitler 박사도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그는 지금 잠도 제대로 못자고 고군분

투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포부를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선 저명한 교수 아무개와 아무개 그리고 또 아무개를 데리고 와야 하겠다. (아무개라고 한 것은 그들은 미국에 초일급의 교수들이다. 내 생각으로는 그 아무개씨들이 이곳까지 올 까닭이 없어 보였다) 그러자니 대우도 더 잘해야 되겠는데 학교에는 돈은 없고 참 힘이 들어 죽을 지경이라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또 한 가지 그의 계획은 도서관 학교 학생들 중에 중국 유학생이 너무 많아서 이제부터 외국 학생의 입학은 전제해야 하겠다고 했다. 나도 클라스에 가보니 도서관 학교 학생의 절반 이상이 중국 학생들이었다. 학생중에 외국학생이 많으면 그 학교의 질이 저하되게 마련이다. 즉 아카데미 레벨이 낮아진다. 우리도 이제는 그전처럼 조오지 피바디 대학에 유학 가기는 힘이 들겠다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Gitler 학장은 전임자가 주책 없이 중국 학생을 받아드렸다고 노골적으로 불평을 하고 있었다. 도서관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아도 초라하기 그지 없다.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그 학교의 교육 수준을 당장에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기에 Gitler씨 같은 정력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Gitler씨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는 미혼이며 학교 앞 옥스포드 하우스라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놀란 것은 그는 집에서 일본의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생각하건데 일본에서의 그의 생활에 단단히 재미를 본 모양이다. 방안에 놓여 있는 가구들도 일본 것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을 그의 고향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한편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고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하고 부러운 생각도 들었다. Gitler 학장은 독신자이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그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오직 피바디 대학 도서관 학교의 재건에 바치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왜 장가를 가지 않고 혼자 늙느냐?고 실패되는 질문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그가 나를 친구처럼 대해 주기 때문에 그런 실패되는 질문을 해 보았다. 자기의 어머니가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것을 어렸을 때 보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데에 별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미국에는 남자나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그 후 나는 알게 되었다. 그 다음날 나는 유명한 Joint Library로 갔다. 이것은 내시빌 시에 대학이 세 개 있는데 하나는 조오지 피바디 대학 그리고 밴더빌트 대학 또 스캐렛 대학이다. 이 세 개의 대학에서 공동 책임 하에 연합 도서

관을 세우고 세 학교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 다행하게도 이 세 대학은 서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가능해진다. 미국의 합리주의 사상에서 출발하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해방직후에 연세대학과 이화대학의 Joint Library 안이 검토된 일이 있는데 실현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이 Joint Library의 관장이 유명한 David Kaser 박사이다. Kaser 박사는 ALA 안에 있는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y의 기관지인 격월간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의 편집장을 겸하고 있다. 그는 얼마 전에 AID 조사단의 일원으로서 우리 나라에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가 작성한 보고서는 우리 나라 도서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보고서의 번역은 국립도서관 사서과장 장일세씨에 의하여 도협월보에 게재되고 있다. (1967년 5월호로 완결) 내가 그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여러가지 이야기 끝에 당시 같은 분이 한번 한국에 오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러기를 자기도 바라지만 어디 그런 기회가 있겠느냐고 했는데 1년후 서울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반가워 했는지 모른다. 그 사람은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라이브러리언이다. 말하자면 사서의 화신(化身)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우리 나라에서 그런 타이프의 사람을 한 분 알고 있었는데 그는 지금은 일선에 제치지 않지만 옛날 국회도서관 도서관장으로 있던 고재창 씨가 바로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만나본 일이 없지만 박봉석 선생 같은 분이 그렇지 않으나 하는 추측이 가기도 한다. 이 Joint Library는 학생수와 교수수에 비례하여 그 운영경비를 나누어서 부담하고 있다. 우선 관장도 한 사람이면 되고 그의 모든 것의 중복에서 피할 수 있다. 도서도 복본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특히 비싼 참고 도서 같은 데에서도 절약을 된다. 아이디어로서는 꼭 훌륭한 것이기는 하나 그 반면에 결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공동 소유라는 점에서 세 학교에서 서로 절실감이 희박해지기 쉽고 운영면도 의사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자연이 책임감이 절실해지지 못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고 한다.

나는 Kaser 박사와 그의 사무실에서 장시간 Joint Library의 장점과 결점에 대하여 토의하고 한국에서의 특히 지역 사회 도서관의 합동문제 대학 도서관에서의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 했으나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와 같은 여건에서는 어렵겠다는 것이었다. 피바디 대학의 Demonstration School에 가 보고 느낀 것은 국민 학교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 교육 특히 그 중에서도 라이브러리 에티켓을 철저히 가르치는 점이였다. 도서관 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시민을 양성한다는 이론이 구체

적으로 실험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국민학교 사서 교사가 교육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서 교사는 우선 우수한 교사여야 하겠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서 교사가 아이들의 독서 지도에서 내용의 파악도 그렇거니와 책을 빨리 읽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도 펍 인상적이였다. 정말 독서가라면 책 읽는 속도도 크게 문제 된다. 내시빌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테네시 주립 도서관에 갔다. 석조로 된 거대한 도서관인데 이것은 미국의 다른 주의 경우와 같이 소위 Research Library 이였다.

관장은 스미스 박사였는데 그 분도 젊은 도서관학 박사였다. 미국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도서관장은 전문직으로 되어 있다. 내가 가장 부럽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점이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언젠가는(되도록이면 빨리) 전문직 관장에 의하여 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는 우리 나라와 같이 비전문직 관장에 의하여 도서관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예일 대학 도서관은 미국 대학 도서관의 수준에서 10년 뒤 떨어져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전문직으로 교체한 일이 최근에 있었다. 이상으로 내시빌에서의 나의 공식 스케줄은 끝났다.

여백(餘白)

조오지 피바디 대학 도서관 학교에는 김이라는 한국인 여학생이 한 사람 재학하고 있었다. 그녀도 한국에서는 영문과인가 불문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 와서는 도서관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일본인 학생도 한 사람 있고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중국 학생은 4.5명 되어 보였다. 이것이 피바디의 암이라고 Gitler 박사는 말하고 있었다. 내가 피바디에 갔을 때 이화대학의 영문과의 여자 교수 두 분이 그곳에 와서 공부하고 있었다. 오래간 만에 우리는 공동의 화제를 이야기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바아바 부인은 자기 집에 저녁 초대를 해주었다. 그녀의 남편은 은행의 부총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백만장자여서 그의 저택은 흡사 궁전 같았다. 집안은 온통 단풍나무로 마루 벽 가구를 했고 자동차도 차고에 여러 대 있었다. 그날 밤 체니 부부(체니 선생의 남편은 그다지 이름이 나지 않은 작가라고 했다.) Joint Library의 관장 Kaser 그리고 한국 전쟁 때 연대장이었다는 Dwitt 씨 부부와 그리고 나왔다. 자주있는 일이니까 별 이야기꺼리가 없지만 신기하게 여긴 것은 응접실에 우리 나라 옛날 장이 하나 놓여 있다. 이조시대의 것으로 추측 되는 이 장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뉴욕에 있는 골동품상에서 비싸게 산 거라고 한다.

(19면에 繼續)

제가 생각하기에는 要略해서 말하면 圖書館學은 “積極的인 文化暢達을 위한 最善의 條件造成의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이라”고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圖書館學이 하나의 目的下에 體系化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現在까지 圖書館奉仕의 體系는 圖書館自體에서 이루어지는 奉仕體系만을 意味해 왔는데, 제는 于先의으로 國家의 基本法에 基礎를 둔 圖書館法과 이에 따른 圖書館政策 및 그 行政을 奉仕體系의 第2位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圖書館法은 國家 또는 政府가 積極的인 文化暢達에 奉仕하겠다는 政策이 提示되지 않았으니 政府는 同法에 있어서 이 點을 時急히 改定하여, 그 誠意와 意志를 뚜렷히 밝히는 同時에 이를 誠實하게 實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나라의 大學 學部過程에 있는 圖書館學科 以外的 어느 圖書館教育機關에 있어서도 圖書館學全般에 걸친 基本概念을 周知시키는 入門科目이 于先의으로 配定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圖書館教育은 그 教育過程이 圖書館學의 體系에 따라서 均衡的으로 配定되어야 하는데, 韓國의 圖書館教育에 있어서는 形式上으로는 큰 缺陷은 없으나 內容이 充實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圖書館學의 歷史的인 研究와 關聯되는 科目 즉 圖書館史, 圖書의 歷史, 古來의 書誌 등은 文化史的으로 다루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圖書館學分野에 있어서 學生들을 위한 教材를 速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圖書館學分野에 있어서 創意的인 研究實績이 貧弱하니 이를 激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過去에는 圖書館教育을 받은 분들이 主로 圖書館의 資料整理에만 얽매어 있었는데, 이제는 國會 圖書館에서 印刷카드가 나오고 있으므로 資料整理에 있어서 相當한 도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利用者에 대한 直接的인 奉仕에 注力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우리 나라의 教育大學이나 師範大學에는 圖書館教育이 어느程度 必要하고 圖書館學分野에서도 教育學이 어느程度 必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先進外國에서는 圖書館과 圖書館奉仕業務가 發展하여 圖書館人的 數的인 不足과 能力的 問題까지 解決策을 求하고자 國際會議를 가지는데, 우리나라의 圖書館奉仕도 迅速히 發展하여 이러한 境地에 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23面에서 繼續)

그 후에 안 일이지만 우리 나라 장농이 미국의 상류 계급에서 굉장한 인기라고 한다. 말하자면 한국의 장농은 미국의 부자들의 상징이라고 한다. 얼마 전에 안국동 골동품상에 가서 물어 보았더니 서울에서는 이미 바닥이 나서 업자들이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장농을 사가지고 그것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에는 장농이 없어지고 미국에 가야 볼 수 있는 시대가

올런지도 모른다. 한국 사람은 서양식 캐비닛이나 호마이카 장을 좋아하고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헌 장농을 좋아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수한 것은 그 집에 있는 장농은 응접실에 거꾸로 놓여져 있었다. 나는 그것이 거꾸로 놓였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인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지 잠시 망서리다가 모른체 했다. 그들은 장농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골동품으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다 좋다고 느껴면 그만이지 아니겠는가.

本協會 出版物의 代金

納付를 苦待합니다

本協會에서 發行한 「韓國X進分類法」「韓國目錄規則」「學校圖書館의 施設」「公共圖書館의 施設」「圖書館用語集」「圖書館實務便覽」「選定圖書目錄」등을 引受하시고 아직도 冊代를 未納하신 분은 7月 10日까지 期必 完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周知하실줄 믿습니다만 今年內에 이들 冊代金으로써 完遂해야 할 餘他事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財政事情이 어려우시더라도 圖書館事業發展에 이바지 하시는 뜻에서 上記 期間內에 꼭 納入하여 주시기 거듭 부탁 드립니다.

事 務 局